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을 통해 본 현대조경의 경향

윤수진* · 최정민**

*순천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2000년 늘푸른환경조경설계 공모전으로 시작하여 2004년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대한민국 국민(학생, 일반인, 팀, 국내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경 공모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모전은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고양하는 직접적인 수단이자 동시대 조경의 문제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설계적 실험의 장이기도 하다.(최정민, 2008) 공모전 수상작들은 참고 자료로서 그 다음 설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생각들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모전 작품을 분석하여 그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동시대 조경의 한 단면을 통해 경향을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모전 작품을 통해 조경 설계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미국 메사츄세츠의 브리지파크 국제설계경기 출품작 분석을 통해 현대 조경의 경향을 논하고자 한 연구(김아연, 2005), 설계 매체라는 관점에서 공모작품을 분석하여 현대 조경 설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이상민,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출품작을 분석한 연구(박근현·배정환, 2008), 향동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기반시설공모 입상작을 분석한 연구(홍윤순, 2011)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시 설계 권한을 부여하는 국내·외의 설계 공모(design competition)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참가자들 대부분이 학생이고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지 않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가까운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과 다른 점이다.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수상작들은 대부분 학생들이다. 조경학도가 아닌 학생들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현재와 미래의 조경가들이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배출된 162개 수상작의 설계 특성을 분석하고 동시대 조경의 한 단면을 노출하여 조경 설계 교육과 조경비평, 조

경설계 발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연구 방법과 내용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은 크게 '주제'와 '작품'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의 주제는 시대적 관심사이자 설계지침이다. 해마다 시의성 있는 주제를 통해 동시대 조경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온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의 주제와 주제의 변화, 주어진 주제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이를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주요 관심사로 분석하였다(그림1 참조).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에서는 대상지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공모전이 구체적인 대상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비해,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구체적인 대상지를 제시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설계가가 공모전의 주제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주제에 맞는 작품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가의 자발적 행위이며 또 하나의 설계행위이다. 2013년 제정된 한국조경현장에 나타난 조경의 대상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작품에 나타난 대상지 선정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대상지를 지역별로 나누어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지역별 출제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개념은 대상지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설계가의 입장과 해석의 관점에 관련되어 있다. 설계과정 중 대상지 분석 과정에서 같은 대상지라 할지라도 설계가의 주관적 해석이 더해져 개념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개념은 전략과 프로그램 전반에 반영된다(김아연, 2009). 사실 그동안 많은 현상 공모설계 당선작이나 조경 작품에서는 설계 지침을 요약한 관념적이고 거대한 설계목표를 지향하거나, 공간의 이름붙이기(naming), 개념의 공간화 같은 개념 의존적 설계 작품이 많이 나타났다(이상민, 2006).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는지, 혹은 관념적이고 거대한 개념 의존적 설계인지를 가려 내 보고 전략과 형태에 반영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수상작의 분석은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작품집과 작품집에 실린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토대로 공모전의 주제와 작품 주제

의 정합성, 공모전 주제와 대상지의 관계성, 주제와 대상지가 어떻게 개념이나 전략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설계의 논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나 상징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취급하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로 진행하는 방법(김성태, 2005)으로, 주관적 개입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기본으로 하여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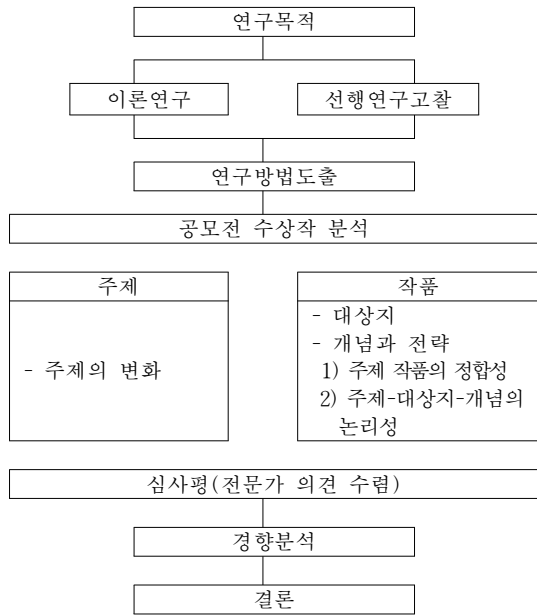


그림1. 연구방법과 과정

III. 작품 분석

1. 주제

2004년부터 2014년 까지 환경조경대전 공모전의 주제는 표1과 같다. 2004년 제 1회 주제는 '회고와 전망'으로 공모전 주제로서는 다소 모호하지만, 동시대 조경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작품을 통해 구체화해보자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5년 다이내믹 랜드스케이프(Dynamic Landscape), 2006년 도시+재생, 2007년 도시인프라, 2008년 작동하는 조경(Operational Landscape) 등은 동시대 조경의 이론적 관심사를 키워드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으로, 조경이 도시와의 관계 모색에 대한 고민을 담는 것으로 이해된다.

2009년 부터 2011년 까지의 주제들은 조경이 다루는 영역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공간'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길(2009), 공원도시(2010), 그린 인프라(2011)라는 주제를 통해 주제 해석의 폭을 줄여 출품작들 간의 비교 평가가 보다 용이하도록 하고 있

다. 이전의 공모 주제들은 다양한 해석과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출품작들의 접근 방법이나 표현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준 차이가 많아(김재식, 2008) 출품작들의 비교 평가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12년 주제는 '경계'라는 키워드를 통해 도시와 조경, 조경과 인간, 도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과 공간적인 경계 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경계를 포함하여 조경인식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조동범, 2012). 2013년은 '열린 정원', 2014년은 '공공복지'라는 주제를 통해 공동체 문제나 사회적 가치 창출 같은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반응해야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주제는 '각론적인 공간 영역' 제시 유형과 '개념적 키워드' 제시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각론적 공간 영역 제시 유형은 시대적 고민이나 가치를 담기에 긍정적이고 규범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개념적 이슈 제시 유형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룰 수 있지만, 주제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어(심사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정합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개념적 접근이 유리한 대규모 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감당하지 못하는 큰 스케일을 레토릭으로 처리하는 설계 관행과 구체적으로 디자인이 발전되는 과정과 디테일을 생략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주제

년도	주제
2004	회고와 전망: 우리시대 조경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2005	다이내믹 랜드스케이프(Dynamic Landscape): 역동하는 경관, 생산하는 경관
2006	도시+재생 (Regeneration and Revitalization of Urban Space)
2007	도시인프라 - 조경을 만나다 (Plant meets plants: Industrial site Design with Eco+Culture)
2008	작동하는 조경(Operational Landscape)
2009	길(Concept design & Landscape experience)
2010	공원도시 (Park City)
2011	GREEN INFRA GREEN CITY 녹색인프라도시
2012	경계의 풍경風景, 그 경계境界를 넘어 landscape on the edges, design beyond the borders
2013	열린 정원 Ideas of the Garden in our Times
2014	공공복지 Landscape Architecture as Public Welfare

2. 대상지 선정

162개 수상작의 대상지를 한국조경현장(한국조경학회, 2013)

의 조경의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산업 유산과 재생 공간이 60건(37.0%), 녹색기반시설 41건(25.3%), 수자원 및 체계 13건(8.0%), 주거 단지 11건(6.8%), 생태 자원 보존 및 복원 공간 9건(5.6%), 역사·문화유산 7건(4.3%), 공원과 농·산·어촌 환경 각각 6건으로 (3.7%), 여가 관광 공간과 정원이 각각 3건(1.9%), 교육 공간 2건(1.2%), 건강과 공공복지 공간 1건(0.6%)으로 나타났다(그림 2)

2006년은 “도시+재생(Regeneration and Revitalization of Urban Space)”이라는 주제와 부합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이전적지(산업 유산과 재생 공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임의제 심사평, 2006). 도시인프라를 중심 주제로 “조경을 만나다(Plant meets planr : Industrial site Design with Eco + Culture)”라는 복합적 주제를 다루었던 2007년에는 2006년과 유사한 주제로 인해 중복된 대상지를 다룬 작품들이 많았다(신동석 심사평, 2007)

최근에는 쪽방촌, 고시촌, 노숙인을 위한 정원 등 사회 소수자를 위한 공간을 다룬 작품들이 많아져 고무적이었고(이유주현 심사평, 2013), 조경의 대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년원, 구들장, 기름유출, 전봇대 등이 대상지로 다루어졌다(이상민 심사평, 2014)과 같이 대상지와 관심분야가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있다. 이는 ‘열린 정원’(2013), ‘공공복지’(2014) 같은 주제와 깊이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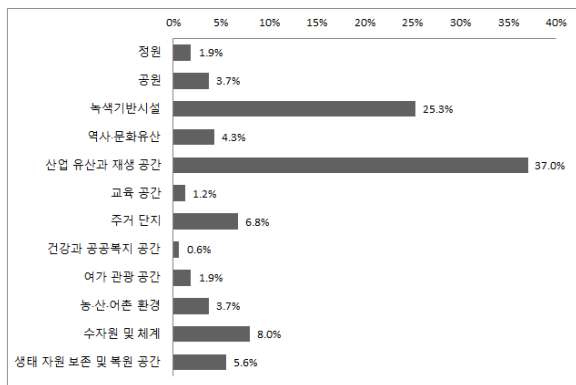


그림 2. 수상작품의 대상지 유형 분석

대상지의 위치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이 77건(47.5%), 경상권 35건(21.6%), 경기 32건(19.8%), 전라권 9건(5.6%), 강원과 충청권이 각 4건 (2.5%), 기타 1건(0.6%)이었다. 수상작들이 선정한 대상지들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67.3%)되어 있다. 이는 서울 경기권에 많은 대학이 있고, 참가작 수가 많은 것만 아니라 수상작을 많이 배출할 만큼 작품의 수준도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전라, 강원, 충청권 대상지가 적은 것은 이 지역 대학들의 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수상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출품자들이 근거지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추론도 가능한

것으로 향후 구체적 대상지를 제시할 경우, 대상지가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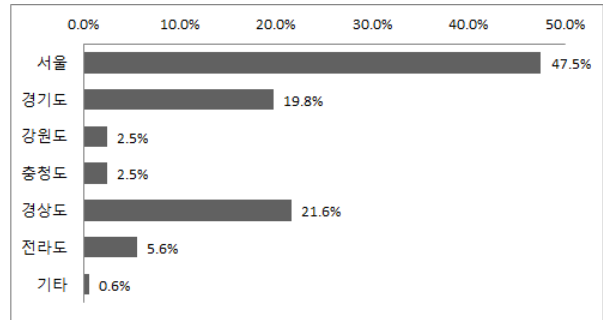


그림 3. 수상작품 대상지의 지역별 분류

3. 개념과 전략

1) 주제 작품의 정합성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해마다 시의성 있는 주제가 제시되고,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 분야와 대상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심사평의 단골 주제가 있다. 거의 매회 심사평은 주제와 작품의 개념 연관성이 떨어지고, 작품의 개념이나 전략이 디자인으로 연관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수상작들이 막연한 개념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모든 출품작이 설계과정의 전개, 개념에서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명쾌함이 부족하다는 평(이수학 심사평, 2007), 여전히 부유하는 개념과 실체가 불분명한 결과물도 많다(우대준 심사평, 2008)는 지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많은 응모작들이 거대하고 관념적인 설계목표나 개념을 설정하고 디자인 연관성 없이 이름붙이기(naming)에 그치거나, 개념을 직설적으로 형태화하여 공간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념적이고 거대한 개념을 내세우거나, 이름붙이기, 개념의 직설적 형태화 같은 개념 의존적 수상작들은 1회 13작품 중 9건(69.2%), 2회 13작품 중 8건(61.5%), 3회 13작품 중 6건(46.2%), 4회 18작품 중 10건(55.6%), 5회 17작품 중 8건(47.1%), 6회 15작품 중 8건(47.1%), 7회 15작품 중 6건(53.3%), 8회 15작품 중 6건(40.0%), 9회 15작품 중 5건(33.3%), 10회 14작품 중 4건(28.6%), 11회 14작품 중 4건(28.6%)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작품들이 평생 한번이라도 다룰 수 있을지 모르는 대규모 대상지를 선정하여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이름으로 설계 내용과는 연관성 없어 보이는 개념을 제시하고 교묘한 이미지로 이목을 끌어 당선을 피하는 문제(최정민 심사평, 2013)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이목을 끌어 당선하고자하는 공모전의 속성이기도 하다.

2) 대상지-개념-디자인 연관성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로 인해 많은 심사평들은 개념과 디자인의 연관성, 보다 충실한 설계과정과 논리를 통해 설계적 능력 배양에 대한 바람을 피력하고 있다. 즉, 계획 대상지를 제대로 읽고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설계의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길 바라는 의견(임의제 심사평, 2006), 참신한 개념이 공간으로 전개하는 과정의 논리성에 대한 보완 의견(채선엽 심사평, 2010), 형식적인 분석과 습관적인 개념 전개보다는 공간적 발전에 대한 바람(이유직 심사평, 2011, 2012) 등이 대표적이다. 지적에서 나아가 개념과 디자인이 보다 연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획대상지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개념을 도출할 것을 권고하는 심사평(임의제 심사평, 2006; 김연금 심사평, 2014)도 있다.

4. 종합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사회 변화에 따라 조경 분야가 변화해야하고, 사회적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환경조경이 시작된 2004년 심사총평(김세천)은 “사회전반에서 전문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전문분야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간의 정태적이고 자기완성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조경공간은 새로운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적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므로 동태적, 가변적 조경의 필요성”(김한배 심사평, 2005)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녹색복지, 환경복지, 조경복지가 시대적 의제가 되고 있으며, 일상과 삶의 기반으로서의 조경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최정민 심사평, 조동범 심사평, 2014)고 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조경의 역할이 녹지공간제 공에서 일상과 삶의 영역으로, 인간 활동의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주제와 심사평, 수상작들은 현대조경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단면이다.

IV. 결론 및 고찰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이라는 수상작의 설계 특성을 분석하여 동시대 조경의 한 단면을 노출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의성있는 주제 제시를 통해 동시대 조경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과 답을 구하고 있는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의 주제는 ‘각론적인 공간 영역’ 제시 유형과 ‘개념적 키워드’ 제시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둘째, 주제와 관련되어 선정된 대상지는 산업 유산과 재생공

간이 가장 많은 비중(37.0%)을 차지하고, 다음은 녹색기반시설(25.3%), 수자원 및 체계(8.0%), 주거 단지(6.8%) 순이었다. 최근에는 쪽방촌, 고시촌, 노숙인을 위한 정원 등 사회 소수자를 위한 공간과 소년원, 구들장, 기름유출, 전봇대 등과 같이 대상지와 관심분야가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출품작과 많은 수상작들은 주제와 작품의 개념 연관성이 떨어지고, 작품의 개념이나 전략이 디자인으로 연관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받고 있다.

넷째,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은 사회 변화에 따라 조경 분야가 변화해야하고, 사회적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의 많은 응모작과 수상작들은 대상지-개념-설계 내용의 연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설계 방법과 교육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라, 강원, 충청권 대학들의 참여와 성과가 저조하므로 적극적 참여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설계 능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한국조경학회(2004) 2004년 제 1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작품집
2. 한국조경학회(2005) 2005년 제 2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작품집
3. 한국조경학회(2006) 2006년 제 3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작품집
4. 한국조경학회(2007) 2007년 제 4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작품집
5. 한국조경학회(2008) 2008년 제 5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작품집
6. 한국조경학회(2009) 2009년 제 6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작품집
7. 한국조경학회(2010) 2010년 제 7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작품집
8. 한국조경학회(2011) 2011년 제 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작품집
9. 한국조경학회(2012) 2012년 제 9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작품집
10. 한국조경학회(2013) 2013년 제 10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작품집
11. 한국조경학회(2014) 2014년 제 11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작품집
12. 김아연(2005) 브리지파크 국제설계경기에 나타난 현대 조경설계의 경향. 한국조경학회지 33(5):15-30
13. 김성태(2005) 국내 내용분석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커뮤니케이션 이론, 1(2), 39-67.
14. 박근현, 배정환(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 공모에 나타난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36(5):13-25
15. 이상민(2006) 설계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이상민, 조정송(2004)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1(6): 15~27.
17. 홍윤순(2011) 조경현상설계지침과 출품작의 내용관계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39(2): 18~28.
18. 환경과 조경(2009) 스튜디오 101, 설계를 묻다(2), vol 250: 172~177
19. 최정민(2008) ‘디자인 뒤의 디자인’ 봄, 디자인 경쟁시대의 조경, 도서출판 조경